

제23호(2012. 6. 29)

구제역 이후 양돈산업의 동향과 과제

정 민 국 우 병 준 김 원 태

1. 구제역 이후의 양돈산업 동향	3
2. 양돈 및 돈육에 대한 생산자·소비자 의견	5
3. 2012년 하반기 돼지고기 수급 전망	13
4. 양돈산업의 당면 과제	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김정호** 선임연구위원 02-3299-4221 jhkim@krei.re.kr
내용 문의: **정민국** 연구위원 02-3299-4263 mkjeong@krei.re.kr
자료 문의: **원동환** 전문원 02-3299-4274 wondh@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요 약 ◇

2010년 11월 하순에andong에서 발생한 구제역(FMD)은 이듬해 봄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히 ‘사상 최악의 가축질병 재앙’이라고 불릴 정도로 양돈산업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음. 국내 돼지 사육두수의 약 30%에 해당하는 332만두가 매몰 처분되었으며, 일부 양돈농가들은 파산에 이르고 공급 부족으로 돼지 가격도 크게 상승하였음. 그 후 1년이 경과한 지금 양돈산업은 농가들의 적극적인 모돈 입식으로 빠르게 회복되어 가고 있음. 2012년 3월 기준으로 모돈수는 구제역 발생 전인 2010년의 97%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6월 사육두수도 97~98%까지 회복될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사육두수 회복과정에서 후보 모돈이 부족하여 비육용 암돼지(F2)가 모돈으로 사용되는 등 돼지의 생산성과 품질 저하가 우려됨. 농가조사 결과, 양돈농가의 약 30%가 모돈용으로 F2를 일정부분 사용하고 있고, F2의 생산성이 정상 모돈(F1)의 8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구제역 발생 이후의 국내산 돼지고기 품질에 대한 소비자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소비자의 8~10%가 돼지고기의 품질 저하를 지적하였음.

구제역 발생으로 위축된 양돈산업은 금년 중에 대부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수입육을 포함하여 하반기에는 공급과잉으로 돈가의 약세가 우려되는 반면, 양돈경영은 저생산성과 고생산비로 인해 채산성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또한 가축분뇨와 가축질병 문제로 지역사회에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업 규제 강화는 양돈산업이 당면한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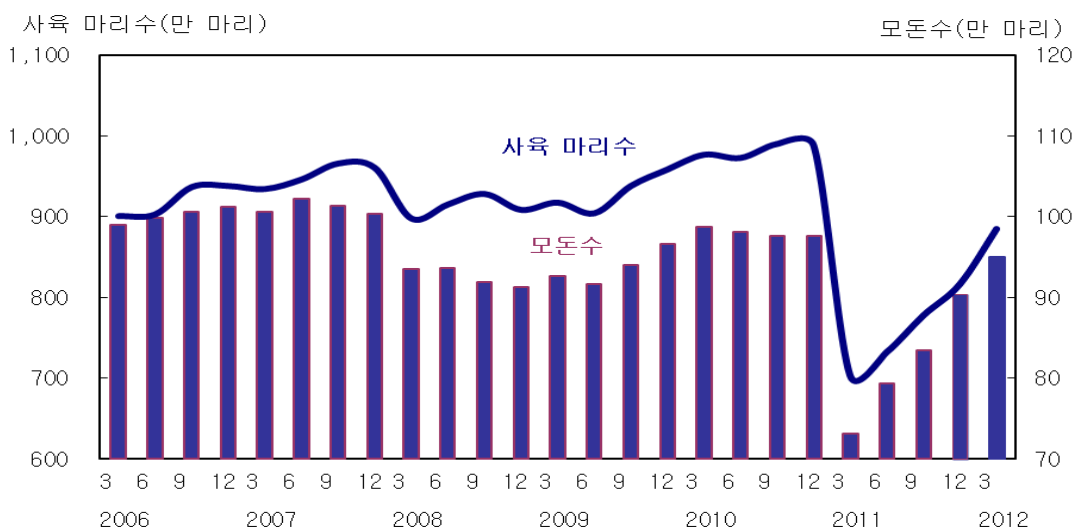
금년 하반기 양돈산업의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측면에서는 F2 모돈을 비롯한 저능력 모돈의 적극적인 도태가 필요하며, 수요 측면에서는 저지방 부위에 대한 소비 촉진이 필요함. 현재와 같이 삼겹살 중심의 소비구조로는 국내 사육두수가 아무리 많아도 삼겹살 수입 편중을 개선하기 어려움. 나아가 장기적으로 양돈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고품질 돼지고기를 생산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기반을 확대하고,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PRRS) 근절 등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생산비를 절감해야 함. 또한 가축분뇨와 가축질병의 철저한 관리와 통제를 통해 양돈산업을 환경친화 산업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함.

1. 구제역 이후의 양돈산업 동향

□ 2012년 3월 기준 돼지 사육 마리수 885만 마리로 빠른 회복세

- 2010년 11월~2011년 3월 구제역(FMD) 발생 여파로 약 332만 마리의 돼지가 매몰 처분되어 사육 마리수는 2010년 12월 988만 마리에서 704만 마리('11년 3월)까지 감소
- 2011년 3월 이후 사육 마리수는 꾸준히 회복되어 2012년 3월 현재 사육 마리수는 885만 마리로 증가
 - 사육 마리수(만 마리) : ('11. 3) 704 → ('11. 9) 778 → ('12. 3) 885
- 사육 마리수의 빠른 회복은 지속적인 모돈 입식과 매몰된 돼지를 재입식하는 농가수 확대에 기인
 - 2012년 3월 사육 마리수 885만 마리는 2010년 12월 988만 마리보다 약 10% 적은 수준
 - 2012년 3월 모돈수 95만 마리로 2010년 12월의 97.3% 수준 회복
 - 사육 농가수(호) : ('10.12) 7,347 → ('11. 3) 5,705 → ('12. 3) 6,444

그림 1. 돼지 사육 마리수와 모돈수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 소비 부진과 재고 누적으로 '11년 하반기부터 돈가 약세 지속

- 구제역 발생 후의 돼지 두수 감소에 따라 2011년 상반기 돈가는 강세를 보였으나, 여름 성수기의 긴급할당관세 물량 도입으로 하반기부터 하락세로 전환

표 1. FMD 발생 이후 돼지고기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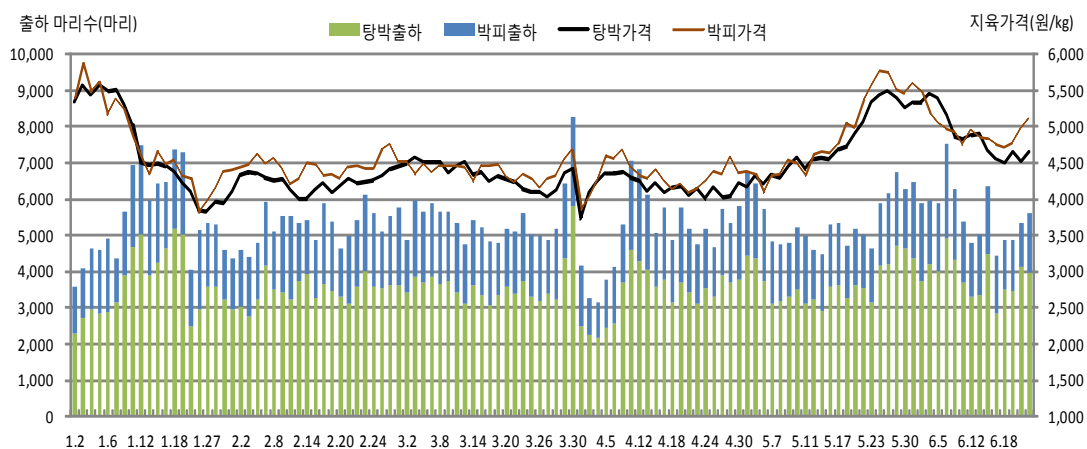
기간	가격 동향
'11. 3월	탕박 기준 5,948원/kg으로 전년 동기보다 63.8% 상승
'11. 4월	이동제한조치 해제로 출하 집중되며 탕박 5,740원으로 하락
'11. 5~6월	출하 마리수 부족으로 탕박 7,032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2.2% 상승
'11. 7~8월	긴급할당관세 적용으로 탕박 5,969원으로 하락
'11. 9~10월	추석 명절과 도축 증가로 탕박 4,682원으로 하락
'11. 11~12월	김장철 수요 증가 및 육가공업체 재고 확보로 탕박 5,622원으로 상승
'12. 1월	전년 여름 분만을 저하에 따른 출하감소로 평년보다 높은 탕박 4,658원
'12. 2월	소비부진과 재고누적, 육가공업체 작업량 감소로 탕박 4,230원으로 하락
'12. 3월	학교급식이 재개되면서 탕박 4,344원으로 소폭 상승
'12. 4월	전반적인 상황 악화 지속으로 탕박 4,158원의 하락세 전환
'12. 5월	성수기임에도 정부 물가관리 대책으로 탕박 4,784원에 머뭄

주 1: 2012년 1월 1일부터 돼지고기 기준가격으로 박피에서 탕박으로 전환됨

2: 제시된 가격은 월 평균가격임

- 2012년 6월 현재(1~25일) 평균 지육가격은 kg당 4,852원(탕박 기준)으로 전월보다 1.4% 높은 수준이지만, 중순 이후 도매시장 출하 증가로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

그림 2. 돼지 출하 마리수와 지육가격 동향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2. 양돈 및 돈육에 대한 생산자·소비자 의견

2.1. 생산자 조사

□ 조사 개요

- 구제역(FMD) 이후 사육 현황 및 향후 의향 조사
 - 조사 기간: 2012년 6월 14~15일
 - 조사 대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양돈 표본농가 178호
 - 조사 방법: 전화 조사

□ 구제역 영향으로 사육돼지를 전수 매몰한 농가는 25% 정도이며, 모든 재입식 시기는 2011년 2분기가 많음

- 조사 농가 중에서 2010년 11월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전수 매몰 피해 농가는 25.3%, 일부 매몰 농가는 18.2%, 피해가 없었던 농가는 56.5%로 나타남

표 2. FMD 피해 여부

단위: %

전수 매몰	부분 매몰	피해 없음
25.3	18.2	56.5

- 조사 농가의 모든 재입식 시기는 2011년 2분기가 28.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11년 3분기 19.4%, 매월 조금씩 17.9%순

표 3. 모든 재입식 시기

단위: %

2011년 1분기	2011년 2분기	2011년 3분기	2011년 4분기	2012년 1분기	매월 조금씩	미입식	기타
3.0	28.3	19.4	7.4	6.0	17.9	9.0	9.0

- 조사 농가의 F2 모돈 입식 비중은 10% 미만인 71.1%로 가장 높지만 50% 이상 입식한 농가도 11.2%, 40~50% 입식 농가 8.6%로 40% 이상 입식한 농가가 약 20%를 차지

표 4. F2 모돈 입식 비중

단위: %

10% 미만	10~20%	20~30%	30~40%	40~50%	50% 이상
71.1	4.6	2.6	2.0	8.6	11.2

- 구제역 이후 모돈 생산성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F2 입식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

- 조사 농가의 57.3%가 FMD 이후 모돈 생산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별 차이가 없다는 농가는 26.8%

표 5. FMD 이후 모돈 생산성 차이 인식 비중

단위: %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57.3	26.8	15.9

- FMD 이후 모돈 생산성 차이 발생 요인으로 F2 모돈 도입이 54.5%, 돼지생식호흡기증후군(PRRS) 등 질병이 18.2%, 백신 접종 7.3% 순으로 조사되어 F2 모돈 도입이 모돈 생산성 저하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

표 6. 모돈 생산성 격차 원인

단위: %

구제역 백신 접종	F2 모돈 도입	정액품질 저하	PRRS 등 질병	항생제 사용 금지	기타
7.3	54.5	3.5	18.2	3.5	13.1

□ F2 모돈 생산성은 F1 모돈의 85% 수준, 조사 농가의 49.3%가 모돈 교체 희망

- F1 모돈의 생산성을 100으로 가정할 경우 F2 모돈의 산자수는 85.1%, 총 이유두수(PSY)는 84.9%로 나타남

표 7. F1 모돈 대비 F2 모돈 생산성

단위: %

	F2 모돈 생산성	
	산자수	PSY
F1 모돈 생산성=100	85.1	84.9

- 금년 4분기 및 내년 돼지 가격 안정을 위해 노산돈 및 저능력 모돈 교체 의향이 있는 농가는 49.3%, 교체 의향이 없는 농가는 38.7% 수준

표 8. 모돈 교체 의향

단위: %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49.3	38.7	12.0

2.2. 소비자 조사

□ 조사 개요

- 여름철 성수기 및 하반기 국산 돼지고기 소비 의향 조사
 - 조사 기간: 2012년 6월 11~14일
 - 조사 대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소비자패널 750명
 - 조사 방법: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조사
- 응답자 특성: 지역별로 서울지역 응답자가 41.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천 10.9%이며, 연령대는 40대 응답자가 46.7%로 가장 많았음. 소득별로는 월 300만 원대 응답자가 28.4%로 가장 많았음

□ 돼지고기 구매 시 주된 고려대상은 부위, 구매장소는 대형유통업체

- 소비자가 돼지고기 구매 시 가장 고려하는 부분은 부위(29.5%)였으며, 그 다음으로 원산지(28.8%), 품질 및 신선도(25.6%), 가격(22.4%), 냉장·냉동 여부(17.0%) 순으로 가격보다는 품질 요소를 더욱 고려

표 9. 돼지고기 구매 시 고려사항(우선순위 가중평균)

단위: %

부위	원산지	품질 (신선도)	가격	냉장여부	대체육류 가격	기타
29.5	28.8	25.6	22.4	17.0	0.6	2.3

- 소비자의 국산 돼지고기 주 구매 장소는 대형유통업체(42.8%)였으며, 그 다음으로 정육점(29.5%), 동네 중소형마트(15.8%)순이며, 수입 돼지고기도 대형유통업체에서 주로 구매

표 10. 돼지고기 구매 장소

단위: %

	대형 유통업체	정육점	동네 중소형마트	SSM	인터넷 및 홈쇼핑	기타
국산	42.8	29.5	15.8	9.1	1.1	1.8
수입	51.3	16.6	14.5	9.7	3.6	4.4

□ 금년 하반기 국산 돼지고기 수요 상반기보다 2% 증가 의향

- 금년 상반기 국산 돼지고기 소비량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수입 돼지고기 소비량은 전년 동기보다 23.1% 감소

표 11. 금년 상반기 돼지고기 소비량

단위: %

	상반기 돼지고기 소비량	
	국산	수입
2011년 상반기=100	100.7	76.9

- 금년 하반기 국산 돼지고기 수요는 전년과 비슷하겠지만 금년 상반기보다는 2.1% 증가하고, 수입 돼지고기 수요는 전년 동기보다 22.3% 감소 전망(소비자의향 조사 결과)

표 12. 금년 하반기 돼지고기 수요

단위: %

	하반기 돼지고기 수요	
	국산	수입
2011년 하반기=100	100.4	77.7
2012년 상반기=100	102.1	77.6

- 국산 돼지고기 수요 증가 이유는 ‘맛이 좋아서(38.9%), 영양과 건강을 위해(35.8%), 쇠고기보다 저렴해서(13.3%)’순으로 조사됨.

표 13. 국산 돼지고기 수요 증가 이유

단위: %

맛이 좋아서	영양과 건강을 위해	쇠고기보다 저렴해서	소비 홍보 영향	구제역 종료	기타
38.9	35.8	13.3	2.3	2.6	7.0

- 수입 돼지고기 수요 감소 이유는 ‘안전성이 의심되어(46.9%), 국산보다 맛이 없어서(23.5%), 콜레스테롤 등 건강상의 이유(10.7%), 대체육류 소비 위해(4.9%)’순으로 조사, 국산 돼지고기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맛도 좋은 것으로 인식

표 14. 수입 돼지고기 수요 감소 이유

단위: %

안전성 의심	국산보다 맛이 나빠	건강상의 이유	대체육류 소비 위해	기타
46.9	23.5	10.7	4.9	14.0

□ 수입 돼지고기 대체육류는 국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순

- 수입 돼지고기 대체 육류는 국산 돼지고기(39.7%), 닭고기(28.8%), 오리고기(18.9%), 수입 쇠고기(5.0%), 한우고기(4.6%)순으로 조사

표 15. 수입 돼지고기 대체 육류

단위: %

국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수입 쇠고기	한우고기	기타
39.7	28.8	18.9	5.0	4.6	3.0

□ 구제역 이후 소비자의 8~10%는 국산 돼지고기의 품질 변화를 인식

- FMD 이후 가정에서 소비되는 국산 돼지고기의 ‘품질에 변화가 있다’는 응답은 8.4%, ‘품질에 변화가 없다’는 54.5%로 나타나 대다수 소비자는 FMD 이후 국산 돼지고기 품질에 변화가 없다고 인식
- 외식으로 소비되는 국산 돼지고기의 ‘품질에 변화가 있다’는 응답은 10.5%, ‘품질에 변화가 없다’는 50.9%

표 16. FMD 이후 국산 돼지고기 품질 변화 인식 여부

단위: %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가정 소비	8.4	54.5	37.1
외식 소비	10.5	50.9	38.5

- FMD 이후 국산 돼지고기 품질 변화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가정 소비의 경우 냄새(25.3%), 지방 과다(22.7%), 식감 질감(19.3%), 육즙누수(18.0%)순이며, 외식 소비는 냄새(19.1%), 식감 질감(18.2%), 타 부위 혼합 판매(16.7%), 지방 과다(15.3%)순으로 나타나, 가정 소비와 외식 소비 모두 ‘냄새’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표 17. 국산 돼지고기 품질 변화 내용

단위: %

	냄새	지방 과다	육즙 흘러내림	식감 질겨짐	타 부위 혼합판매	기타
가정 소비	25.3	22.7	18.0	19.3	12.7	2.0
외식 소비	19.1	15.3	12.4	18.2	16.7	18.2

□ 국산 돼지고기 품질 우수하지만 품질 대비 가격 높다고 인식

- 조사 대상 소비자의 61.8%는 수입 돼지고기를 구매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66.1%는 국산 돼지고기의 품질이 더 우수하다고 인식

표 18. 원산지별 돼지고기 품질 비교

단위: %

국산이 더 맛있다	별 차이를 모르겠다	수입육이 더 맛있다
66.1	33.0	0.9

- 국산 돼지고기 가격(삼겹살 600g, 1만 200~1만 5,600원)을 제시한 후 품질과 가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품질에 비해 매우 비싸다’ 24.9%, ‘품질에 비해 비싼 편이다’ 64.1% 등으로 조사되어 소비자의 89.0%가 품질에 비해 국산 돼지고기의 가격이 비싸다고 인식

표 19. 국산 돼지고기 가격 적정성

단위: %

품질에 비해 매우 비싸다	품질에 비해 비싼 편이다	적정하다	품질에 비해 싼 편이다	품질에 비해 매우 싼 편이다
24.9	64.1	10.6	0.1	0.3

□ 국산 삼겹살 지불의사금액(WTP) 9,400~1만 700원/600g 수준

- 국산 돼지고기의 현재 가격(삼겹살 600g, 평균 1만 1,200원)을 제시한 후 지불의사금액을 조사한 결과 평상시에는 1만 700원, 할인판매 시 9,400원으로 응답

- 수입 냉장 삼겹살은 평상 시 6,800원, 할인판매 시 6,200원의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 냉동 삼겹살은 평상 시 5,400원, 할인판매 시 4,800원의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

표 20. 원산지 선호별 돼지고기 지불 의사 금액

단위: 원/600g

	국산 삼겹살	수입 냉장 삼겹살	수입 냉동 삼겹살
평상 시	10,664	6,835	5,401
할인판매 시	9,367	6,152	4,832

- 돼지고기 삼겹살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금액은 구매처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평상 시 대형유통업체에서 구매 시 지불의사금액은 10,830원이며, 정육점은 10,470원으로 나타남
 - 할인판매할 경우 대형유통업체에서 구매 시 9,500원이며, 정육점은 9,100원으로 조사됨

표 21. 구매처별 국산 삼겹살 지불 의사 금액

단위: 원/600g

	대형 유통업체	정육점	중소형마트	SSM	인터넷 및 홈쇼핑
평상 시	10,832	10,474	10,451	10,823	10,143
할인판매 시	9,520	9,148	9,394	9,275	9,288

3. 2012년 하반기 돼지고기 수급 전망

□ 6월 사육 마리수 940만 내외, 9월은 970~980만 마리 전망

- 6월 모돈 수는 97만 5천 마리로 전년 동월보다 23.0% 많지만 2010년 동월보다 0.6% 적은 것으로 추정
 - 모돈수 회복과 재입식 농가가 증가하여 6월 돼지 사육 마리수는 3월보다 5.6~6.8% 증가한 940만 마리 내외로 전망
 - 금년 6월 돼지 사육 마리수는 FMD 발생 전인 2010년 동월의 96~97% 회복 전망
- 9월 사육 마리수는 970~980만 마리로 6월보다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12월 사육 마리수는 FMD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980~990만 마리로 전망
 - 금년 9월 돼지 사육 마리수는 2010년 동월의 98~99%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12월은 완전히 회복될 전망
 - 저능력 모돈 및 불량자돈 도태 여부에 따라 사육 마리수는 전망치보다 적을 수도 있음

표 22. 돼지 사육 마리수 전망

단위: 천 마리, %

	3월	6월	9월	12월
2012년	8,851	9,350~9,450	9,700~9,800	9,800~9,900
2011년	7,036	7,330	7,783	8,171
2010년	9,768	9,727	9,901	9,880
'12/'11년 증감률	25.8	27.6~28.9	23.3~24.6	19.9~21.2
'12/'10년 증감률	-9.4	-2.8~-3.9	-1.0~-2.0	-0.8~0.2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2012년 6월 이후는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 올해 하반기(7~12월) 돼지고기 생산량 전년보다 39% 증가 전망

- 돼지 사육 마리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7~12월 도축 마리수는 전년 동기보다 36.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10년 동기보다 2.7% 많은 수준
- 도축 마리수 증가로 하반기 국산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38.9% 많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FMD 발생 이전인 2010년 동기보다 7.2% 많은 수준

표 23. 돼지 도축 마리수 전망

단위: 천 마리, %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12년	1,143	1,224	1,207	1,320	1,364	1,335	7,593
2011년	724	885	885	1,027	1,072	968	5,561
2010년	1,145	1,178	1,129	1,291	1,373	1,274	7,392
'12/'11년 증감률	57.9	38.3	36.5	28.5	27.2	37.8	36.5
'12/'10년 증감률	-0.2	3.9	6.9	2.0	-0.6	4.8	2.7

주: 2012년 도축 마리수는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자료: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올해 4분기 돼지고기 평균 지육가격 4천 원 이하 전망

- 소비자조사 결과, 하반기 돼지고기의 수요는 상반기 대비 약 2% 증가하는 반면, 생산량은 더 크게 증가하여 하반기 돼지고기 가격은 약세 국면으로 형성될 전망
- 올해 10월 지육가격은 추석 이후 수요 감소와 국산 돼지고기 공급량 증가로 kg당 3,300~3,600원(전년 동월보다 16.4~23.4% 하락)이 되고, 11~12월 지육가격은 3,800~4,200원(25.3~32.4% 하락) 전망
 - 올해 4분기 돼지고기 평균가격은 탕박 기준 4,000원 이하로 형성될 전망

4. 양돈산업의 당면 과제

□ 올해 하반기 돼지고기 공급 증가로 가격 하락세 전망, 저능력 모돈의 적극적 도태와 소비촉진 활동 필요

- 올해 하반기 돈가 하락세가 전망되고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배합사료 가격 인상요인이 있어 양돈농가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
- 돈가 안정을 위해 F2 모돈을 비롯하여 저능력 모돈에 대한 적극적인 도태가 필요하며, 삼겹살 등 특정 부위에 편중된 수요 분산을 위한 다양한 삼겹살 대체 부위 개발 노력과 저지방 부위에 대한 다양한 소비촉진 활동을 전개할 필요

□ 국내산 돈육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로 시장차별화 강화

- 소비자 조사 결과, 국내산 돼지고기의 선호 요인은 맛과 건강적 요소 때문인 반면,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의심 때문에 소비 감소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
 - 일반 소비자들은 FMD 이후 돼지고기 품질 저하 문제를 크게 느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육가공업체들은 품질 저하 문제를 제기
 - 5월 도매시장 출하 돼지의 1B 등급 이상 출현율은 전월보다 1.5%p 감소, 2C 이하 등급 출현율은 전월보다 1.5%p 증가
- 우량 모돈의 확보와 함께 돼지고기 품질 제고를 위한 양돈농가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여 돼지고기 품질 간 변별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등급제도의 개선 필요
- 국내산 돼지고기 이력추적제 도입 등으로 국산 돼지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구축이 관건

□ 돼지의 질병 근절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생산기반 강화

- 양돈농가 조사 결과에서 생산성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구제역 발생 후 F2 모돈 입식과 PRRS 등의 질병 발생을 지적
 - F2 모돈 입식 농가의 경우 F1에 비해 생산성이 약 15%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됨
- 양돈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F2 모돈을 비롯한 저능력 모돈의 적극적인 도태가 이루어져야 하며, PRRS 등 가축질병의 근절을 통한 청정화 방안 모색 필요

□ 친환경축산 기반 구축을 통한 환경 관련 규제에 대응

- 구제역 발생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축산업이 혐오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축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
 - 환경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권고안 발표(2011.11월) 및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 발표(2012.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및 강화를 통한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 가축사육 제한 규정 강화
- 정부 및 지자체의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지역 특성과 축사시설 수준, 축산농가의 환경개선 노력 등을 고려한 탄력적인 제도 운영 필요
- 양돈산업을 비롯한 축산업도 생산액 규모에 맞게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책임과 지역 발전 기여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고,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하여 지역사회와의 공존 모색 필요

「KREI 농정포커스」 발행 목록

2012년

- 제23호 구제역 이후 양돈산업의 동향과 과제(정민국, 우병준, 김원태)
- 제22호 북한의 가뭄 실태와 식량수급 전망(권태진, 남민지)
- 제21호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 과제(성주인, 채종현)
- 제20호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시사점(박대식, 마상진)
- 제19호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시사점(문한필, 전형진)
- 제18호 미국 BSE 발생이 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17호 한·중 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어명근)
- 제16호 건고추 가격의 변동성과 시사점(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 제15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와 시장 전망(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 제14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3호 최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 성과와 과제(최경환)
- 제11호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황의식, 김동훈)
- 제10호 최근의 경지면적 변화 동향과 시사점(채광석)
-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최세균, 정대희)
- 제 8호 최근 소값 하락의 원인과 대책 방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 7호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 적응 실태와 과제(박대식, 마상진)
- 제 6호 2012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2011년

- 제 5호 2011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 4호 한·미 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최세균)
- 제 3호 농산물 수출증대의 요인과 경제적 파급효과
-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 제 2호 2011년산 쌀 수급 전망 및 시사점(한석호, 승준호)
- 제 1호 2011년 김장시장 분석과 전망(이용선, 서대석)

KREI 농정포커스 제23호

구제역 이후 양돈산업의 동향과 과제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2. 6. 28

발 행 2012. 6. 29

발 행 인 이동필

편집위원 김정호, 박준기, 이명기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문원사

02-739-3911

munwonsa@hanmail.net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